

19- 20C 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나타난 “聖靈” 어휘 유래 고찰

소은희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3:16, 출17:14). 이 성경은 약 40여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천오백여 년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중 “성령(聖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골1:13),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요5:24)하시는 근거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며(요15:2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롬8:16)

본 논문은 19-20C 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¹⁾을 저본으로,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 하신 중국어 어휘 “성령(聖靈)”의 유래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19-20C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나타난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

19-20C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 贺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圣经》(LP,1803), 马礼逊、米怜译本 (MM,1813) 马殊曼、拉撒译本(ML,1822), 郭实腊译本 (GL , 1839) 委办本译本(DB,1854), 麦都思南京官话译本(NJ,1857) 裨治文、克陛存译本BC(1863) , 北京官话译本(BJ , 1872) , 杨格非译本(GJ , 1886), 杨格非译本(GJ , 1892), 施约瑟译本(SS , 1902) , ,和合本官话

1) 贺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圣经》(LP,1803), 马礼逊、米怜译本 (MM,1813) 马殊曼、拉撒译本(ML,1822) , 郭实腊译本 (GL , 1839) 委办本译本(DB,1854), 麦都思南京官话译本(NJ,1857) 裨治文、克陛存译本BC(1863) , 北京官话译本(BJ , 1872) , 杨格非译本(GJ , 1886), 杨格非译本(GJ , 1892), 施约瑟译本(SS , 1902) , 和合本官话译本 (HH , 1919)

译本 (HH , 1919) 을 저본으로, 사도행전 1:8의 말씀을 번역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LP(1803) :1:8 但**聖神**降临在你们上，賦他恩與你們，你們纔（纔）從日露撒冷、如德（德）亞、撒瑪里亞等處到地兩頭証見我。」
- 2.MM (1813) :1:8 惟汝將受上臨汝**聖風**之德、而汝爲吾証于耶路撒冷、與如氏亞諸方、于撒馬利亞、至地末之境也。
- 3.ML (1822) :1:8 惟汝將受德于**聖風**臨汝後，而汝則爲吾證于耶路撒冷及如氏亞諸方于沙麻利亞至地末之境也
- 4.GL(1839) (救世主耶穌新遺詔書,郭实腊译) 1:8 惟**聖神**既臨、爾將領德、爲我供證、在耶路撒冷、猶太、撒馬哩亞、諸方、至於地極矣。
- 5.DB (1854) :1:8 惟**聖神**臨時、爾則有才、且爲我作證於耶路撒冷、舉猶太、撒馬利亞、以至地極、
- 6.NJ (1857) :1:8 但**聖神**降臨的時候，你們將得著才能，而且替我作見證，在耶路撒冷和猶太與撒馬利亞並到地的極處
- 7.BC(1863) :1:8 但**聖靈**臨爾、爾將受能、爲我作證於耶路撒冷、徧猶太、撒馬利亞、以致地極。
- 8.BJ(1872) :1:8 **聖靈**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且在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及天下極遠的地方、爲我作見證。
- 9.GJ(1886):1:8 惟**聖神**臨爾時、爾則必得能力、且必爲我作證於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至地極也。
- 10.GJ(1892):1:8 惟**聖神**降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且必爲我作見證、在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至地極。
- 11.SS (1902) :1:8 惟**聖神**臨爾後、爾將受能力、爲我作證於耶路撒冷、猶太全地、撒瑪利亞、以至地極、
- 12.HH (1919) :1:8 但**聖靈**降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要在耶路撒冷、猶太全地，和撒馬利亞，直到地極，作我的見證。」

위에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丑1)

聖風	聖神	聖靈
马礼逊、米怜译本 (MM,1813) 马殊曼、拉撒译本(ML,1822),	贺清泰《古新圣经》(LP,1803) 郭实腊译本 (G,1839) 委办本译本(DB,1854), 麦都思南京官话译本(NJ,1857) 杨格非译本(GJ, 1886), 杨格非译本(GJ, 1892), 施约瑟译本(SS, 1902)	裨治文、克隆存译本BC(1863) 北京官话译本(BJ, 1872), 和合本官话译本 (HH, 1919)

19-20C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의하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5:4-8)의 “성령(聖靈)” 1813년 로버트 밀른과 1822년 마슈만 라샤르 중국어 성경에는 “聖風”으로 표기되어 있고, 루이 앙투안 드 포이로에 의해 번역된 《古新圣经》과 1839년 번역된 귀츨라프 역본, 1854년 대표본, 1857년 미드허스트의 남경관화역본, 1886년 문언문으로 번역된 그리피스 존 성경과 1892년 백화문 그리피스 존 성경, 쉘레쉴브스키 중국어 성경은 “성신(聖神)”으로, 1863년의 브리지만 컬버슨, 1872년 북경관화역본, 1919년 화화본 관화 중국어 성경에는 “성령(聖靈)”으로 표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2 중국어 성경과 초기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

1874년 만주 봉황성 고려문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는 당시 조선 의주 출신의 이응찬(李應贊)과의 만남을 인연으로, 조선말을 배워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와 의주출신 세레자 이응찬(李應贊)등과 함께 1886년 초기 한국어 신약성경 『예수성교전서』를 완역하였다. 1879년 4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 초고가 완성되었고, 1882년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왔다. 이렇게 滿洲에서 인쇄된 성경들은 백홍준(白鴻俊), 서상륜(徐相崙), 최성균 같은 매서인(2)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이 때 이들은 중국어 성경 『대표본(1854년)』을 주된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³⁾

한편 1884년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이수정(李樹廷)은 중국어 성경 『브리지만.컬버슨역(1863년)』을 저본으로 우리 말 이두식 토를 다는 형식으로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을 간행하였다. 이 『현토한한성경』은 1885년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으로 들여왔다.

위의 고찰에 의하면, 그간 한국 학계에서 존 로스(John Ross)과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의주 출신 세레자이응찬(李應贊)등이 만주에서 번역한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가 중국어 성경 『대표본(1854년)』을 주된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표1에서 보이듯 “성령(聖靈)”은 “성신(聖神)”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래 표2와 같이 “성령”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이는 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는 위의 내용에서 1863년 중국어 성경

2) 매서인은 중국어로 “賣書人”으로 “책을 파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3) 이환진(1987:11-12), 이만열(1993:49), 히로다카시(2005)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p46-p49

로스 역의 저본 문제에 대해 히로다카시는 John Ross의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Corea, 1881>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나의 성경반에서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은 나와 함께 한문 성서를 읽은 후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원문에 가깝게 하였다.” 즉 매킨타이어의 증언을 들어, 로스역의 저본은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문이라기보다는 한문 성서였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表紙에는 “ ST.Luke, 1882. First edition in Korean Translated from the Chinese Version by John Ross of the U.P. Church of Scotland, with the help of Koreans”라고 명시되어 “한국인들의 도움을 얻어 중국성서로부터 번역하였다”고 적혀있다.

브리지만.컬버스 역본(裨治文、克陞存译本)부터 “성령(聖靈)”으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2)

한편 일본에서 유학중이었던 이수정(李樹廷)은 1884년 중국어 성경 『브리지만.컬버슨(1863년)』을 저본으로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을 간행했다.

이렇듯 중국어 성경은 초기 한글 성경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던 까닭에,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인의 언어에 없던 많은 기독교 용어들이 자연스레 한국어 성경에 상당수의 중국어 어휘들이 많이 흘러 들어왔다.

3.나오는 말

우리는 위의 고찰을 통하여, 중국과 연접해 있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교류하며 중국의 문자인 한자가 우리 말로 번역, 독음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자연스레 우리 언어로 스며 들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성령(聖靈)”이라는 기독교 용어는 때로는 “성령(聖靈)”이라는 말로 혹은 “성신(聖神)”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후 이 어휘는 점점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여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성령(聖靈)”이라는 어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뉘레야 뉘 수 없는 三位一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요3:3), 또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3:5)고 말씀하신다.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어휘 “성령(聖靈)”은 1863년 “브리지만 .컬버슨” 중국어 성경에서 그 처음 유래를 찾아볼 수 있으며,처음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았던 까닭에, 한자 “성령(聖靈)이 처음 한글 번역자들에 의해 우리말로 독음 되었고,이후 우리나라 말처럼 한국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어휘라고 하겠다.

최초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로의 성경번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민족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그의 말씀을 우리말 한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은혜의 사건이라 하겠다.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19- 20C 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나타난 “聖靈” 어휘 유래 고찰	발표자	소은희
		논찬자 (소속)	이환진 (감리교신학대 교수)

발표자의 글은 한글성경의 “성령”(聖靈)이라는 용어가 19-20세기 중국어 성서에서 어떻게 왔는가를 추적한 글이다.

이 용어는 <성경 개역>(1938)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초의 개신교회 공인역 <구역>(1906)이나 개인역 <게일-이원모역>(1925)에서는 “성신”(聖神)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성경 개역>은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용 성경으로 <개역 한글판>(1952, 1956, 1961, 1964)과 <개역 개정판>(1998, 2000, 2003, 2005)을 거치면서 조금씩 고쳐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곧 “성령”이라는 한글 용어는 발표자의 연구대로 개역 성경에 의하여 고착된 용어이다.

그런데 중국어 성서에서도 “성령”과 “성신”이라는 두 용어가 19세기부터 사용되었다. 발표자의 연구대로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가장 이른 중국어 성경으로는 <하청태 역본>(1803)이다. 그런데 시리아 동방교회(the Church of the East)의 한 갈래인 중국 경교(景敎)의 <대진경교유행중국비>(781)는 “성령”을 “정풍”(淨風)이라고 부른다. 경교의 다른 문헌은 “양풍”(涼風)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모리슨의 <神天聖書>(1813)는 “성풍”(聖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의 중국 개신교회가의 “성령”과 “성신”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용어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본격적인 탐색에 들어갔다. 영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번역한 <대표본>(1852)은 “성신”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번역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은 “성신”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신명을 “상제”(上帝)로 할 것이냐 “신”(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쟁과 맞물린다. 미국 선교사들은 히브리어 “엘로힘”이나 그리스어 “테오스”를 “신”으로 번역하자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채택했다. 그리고 영국 선교사들은 “상제”로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번역하자고 했기 때문에 “성신”을 채택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도 중국어 성경은 “상제판”(上帝版)과 “신판”(神版)으로 나뉘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용어가 “성신”과 “성령”이라는 용어이다. 어떤 용어가 더 좋으나 하는 것은 여기서 논의로 하기로 한다. 다만 한국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1977)이나 한국 가톨릭교회가 독자적으로 펴낸 <성경>(2005) 모두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읽는 일본어 <개역>(1954)도 “성령”(聖靈)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있다.

수많은 중국어 성서에 그리스어 “프뉴마 하기온”을 여러 용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를 드린다.